**UN 전문가그룹, 한국-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체적 리더십 보여줄 것을 기대**

서울 (2016년 6월 1일) – 한국은 기업과 인권이슈를 개선하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와 관련한 의지를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오늘 첫 공식 방한 일정을 마친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밝혔다.

한국은 일부 세계 최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곳이며 역내 및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 주제를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입지에 있는 국가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한국은 이제 한국기업의 국내/외 활동과 관련한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실무그룹을 이끌고 있는 단테 페스케(Dante Pesce) 위원장은 말했다.

페스케 위원장은 “공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은 각자 영향력을 동원하여 공급사슬을 참여시킴으로써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무그룹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정부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에 담긴 각자의 인권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조사한 결과 국제적 모범관행에 따라 배우고 개선하겠다는 일반적인 의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선도적 실천 사례가 많지 않음을 확인했다.

방한한 실무그룹의 마이클 아도(Michael Addo) 위원은 “우리가 면담한 시민사회단체, 노조, 피해자들이 일부 현행 인권 이슈에 대하여 생생한 증언을 해 주었다”고 말했다.

특히, 실무그룹은 산업재해사고가 많고 직장 내 표준적인 보건안전 주의조치가 불충분한 것과 국내외 피해자들의 구제책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점, 이주 및 임시직 근로자들의 취약한 상황, 그리고 방문한 기업들에서 확인한 고위직 성별 불균형 등 여성에 대한 차별 이슈 등이 특별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도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 이 프로세스는 우리가 접한 일부 어려운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아도 위원은 덧붙였다.

방한기간 중 실무그룹 위원들은 정부 부처 공무원, 공공기관과 지자체, 민간부문, 공기업, 국가인권위,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다양한 주체들을 면담했다.

보다 자세한 조사 내용과 주요 권고사항을 담은 실무그룹의 최종 보고서는 2017년 6월 열리는 UN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 실무그룹 방한결과 보고서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결과 보고서” 참고: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Business/WG_Visits/20160601-KOREA_EOM-KORrev.docx>

끝

*인권과 초국적 기업 및 기타 기업에 관한 실무그룹은 2011년 6월 UN인권이사회가 설립하였다. 현재 실무그룹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마이클 아도(Michael Addo), 수르야 데바 (Surya Deva), 단테 페스케 (Dante Pesce, 위원장), 파벨 술얀지가 (Pavel Sulyandziga, 부위원장)이다. 인권이사회는 2016년 6월에 5번째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페이지 참고:* [*www.ohchr.org/EN/Issues/Business/Pages/WGHRandtransnationalcorporationsandotherbusiness.aspx*](http://www.ohchr.org/EN/Issues/Business/Pages/WGHRandtransnationalcorporationsandotherbusiness.aspx)

*실무그룹들은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의 일부이다. 특별절차는 UN인권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독립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권기구로 인권이사회의 독립적 인권감시 메커니즘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이다. 실무그룹들은 UN인권이사회와 UN총회에 보고한다. 특별절차 임무 수임자들은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이나 전세계에 적용되는 특정 인권주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이사회가 위촉한 독립적인 인권전문가들이다. 이들은 UN직원 신분이 아니며 그 어떤 정부나 단체로부터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개인 신분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활동에 따른 급여를 받지 않는다.*

*UN 기업과 인권 지도원리 :* [*http://www.ohchr.org/EN/Issues/Business/Pages/Tools.aspx*](http://www.ohchr.org/EN/Issues/Business/Pages/Tools.aspx)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가페이지 – 대한민국:* [*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RIndex.aspx*](http://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RIndex.aspx)

*실무그룹 방한관련 추가 정보나* ***언론문의****:*

***서울 연락처 (방한 기간 중):*** *울릭 할스틴 (Ulrik Halsteen) 또는 나탸샤 앤드류스 (Natasha Andrews) +41 79 109 6872/* *wg-business@ohchr.org*

***방한 전후 제네바 연락처****: 울릭 할스틴 (Ulrik Halsteen) 또는 나탸샤 앤드류스 (Natasha Andrews) +41 22 917 9323/* *9269/* *wg-business@ohchr.org*

기타 UN 독립전문가들과 관련한 **언론 문의:**

하비에 셀라야 (Xabier Celaya) – Media Unit (+ 41 22 917 9383 / xcelaya@ohchr.org)

**언론사 뉴스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관련**: 보도자료와 관련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및 주요 내용은 아래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핸들을 이용해 태그해 주시기 바랍니다.

Twitter: [@UNHumanRights](http://twitter.com/UNHumanRights)
Facebook: [unitednationshumanrights](https://www.facebook.com/unitednationshumanrights)
Instagram: [unitednationshumanrights](http://instagram.com/unitednationshumanrights)

Google+: [unitednationshumanrights](https://plus.google.com/%2Bunitednationshumanrights/posts)
Youtube: [unohchr](https://www.youtube.com/user/UNOHCHR)